

'엑소' 두바이 세계 최고층 빌딩 덮었다

한국 아이돌그룹 '엑소'를 주제로 한 LED 쇼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에서 열렸다.

부르즈 칼리파 측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4일 오후 8시 10분 엑소의 초대형 LED쇼가 3분간 열렸다고 전했다.

높이가 828m에 달하는 부르즈 칼리파는 외벽 전체에 소형 LED를 달아 각종 동영상과 그림, 글씨를 생동감 넘치게 구현할 수 있다. 매일 저녁 화려하고 역동적인 LED 쇼가 펼쳐지는 데 이번에 한국의 아이돌그룹 엑소가 쇼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두바이 현지 매체들은 그간 이 빌딩 외벽에 LED로 얼굴이 구현된 인물은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군주국의 왕가로 제한했다면서, 왕가가 아닌 인물은 엑소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LED 쇼와 함께 부르즈 칼리파 바로 앞에 있는 세계적 명소 '두바이 분수'에서는 엑소의 히트곡 '파워'를 배경으로 한 분수쇼도 함께 열렸다.

두바이 분수에서는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이 곡을 주제로 한 분수쇼가 열린 바 있다. 한국 대중가수의 음악이 두바이 분수쇼의 주제곡으로 선정된 것은 엑소의 '파워'가 처음이다.

조니 뎀, 문신으로 엠버 허드 저격



조니 뎀이 엠버 허드와 이혼 후 또다시 손가락 문신을 수정했다.

12일 'OSEN'에 따르면 조니 뎀은 손가락에 새겼던 'SLIM-SCUM'

을 'SCAM'으로 바꿨다. 'U' 위에 빨간색으로 'A'를 덧새겨 눈길을 끈다. 조니 뎀은 과거 오른쪽 손가락에 엠버 허드의 애칭인 '슬림(SLIM)'을 문신으로 새겼다. 하지만 2016년 그와 이혼하며 '인간쓰레기'라는 의미의 '스컴(SCUM)'으로 덧새겼다.

조니 뎀은 이전에도 문신으로 사랑과 이별을 표현했다. 배우 위노나 라이더와 사귄 때 그는 자신의 몸에 '위노나 포레버(Winona Forever)'라고 문신을 새겼지만, 헤어지고 난 후에는 '위노 포레버' (Wino:술주정뱅이 부랑자)라고 문구를 교묘히 바꿔 화제를 모았다.

'타투 마니아'인 조니 뎀은 "나의 몸은 나의 일기이고, 내 타투는 나의 스토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니 뎀과 엠버 허드는 결혼한 지 1년 3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벌였다. 엠버 허드는 조니 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접근 금지 신청을 냈고 조니 뎀은 그가 위자료를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했다. 결국 조니 뎀은 엠버 허드에게 위자료 7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엠버 허드는 이를 모두 기부했다.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음원차트 올킬

그룹 트와이스의 신곡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Dance the Night Away, 사진)가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9일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공개된 트와이스 스페셜 2집 '서머 나이트즈'(Summer Nights)의 타이틀곡인 이 노래는 1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멜론, 지니, 엠넷닷컴, 빅스뮤직, 소리바다, 올레뮤직 등 한국의 6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서머 나이트즈'는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 7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는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6개 지역 아이튠스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는 특별한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아홉 멤버의 청춘을 표현한 업템포 팝곡이다. 트와이스는 국내 활동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는 9월 12일 일본에서 첫 정규앨범 'BDZ'를 발표한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9연속 흥행 기록을 세웠다. 2015년 '우아하게'(OOH-AHH하게)를 시작으로 '치어업'(CHEER UP)과 '티티'(TT), '낙낙'(KNOCK KNOCK), '시그널'(SIGNAL), '라이키'(LIKEY),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에 이어 이번 신곡까지 발표곡마다

1220호 숫자퍼즐 정답									
3	6	4	2	7	9	5	8	1	
1	5	7	3	6	8	2	4	9	
8	9	2	4	1	5	3	6	7	
2	1	6	7	5	4	9	3	8	
4	8	3	9	2	6	1	7	5	
5	7	9	8	3	1	4	2	6	
7	4	5	1	8	2	6	9	3	
6	2	8	5	9	3	7	1	4	
9	3	1	6	4	7	8	5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노후에 부자(富者)가 될 팔자(八字)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팔자에게 단골로 찾아오는 40대의 여자 고객이 있다. 이 여인은 원래 타고난 팔자에 멀쩡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팔자가 되지만 인생 전체에 흐르는 대운(大運)의 흐름이 젊은 날 배우자를 만나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기 힘든 세월을 만나서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몇 년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팔자에게 궁합을 문의해서 팔자가 평생 배필 인연은 아니라고 조언해 주었지만 그 당시에 급하게 결혼을 했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바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는 그래도 팔자의 조언을 잘 듣는 편인데 매년 찾아와서 한 해의 운세를 상담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었는데 한 해의 운세를 설명해주고 나서 팔자가 덧붙여서 해준 이야기는 "지나온 젊은 날의 세월이 여자 팔자로서 몹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결혼도 하고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재산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세월도 있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니까 그 처자가 묻는 말이 "원장님 과연 내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남의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라고 묻는다. 이어서 팔자가 해준 말은 "비록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훗날 큰 부자가 되거든 내가 해준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내년에 좋은 남편감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때에 궁합이나 보러 오세요."라고 말해 주었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팔자가 보기에 이 처자는 비록 젊은 시절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만나고 생스러운 이민생활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거부(巨富)가 될 것이고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게 될 것이니 무척 다행한 일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